

월러드 “빌” 벌러슨 중장은 현재 대한민국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사령관으로 부임중이며 취임전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벌러슨 중장은 1988년 5월 미 육사를 졸업하며 보병장교로 임관을 했으며 사관학교에서 이공계 학위를, 미 육군대학에서 전략학 석사를 , 그리고 미 지휘 참모대학에서 군사 과학과 술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임관 후 첫 보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트 오르드에 주둔하는 제7 경보병사단에서 이집트 시나이 다국적군 및 참관국의 일환으로 근무했으며 파나마 침공에 참전했으며 조지아주 사바나 소재 포트 베닝에 주둔하는 제75 레인저연대 1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비체차에 주둔하는 공정중대장을 역임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작전 최초 투입에 참전했으며 이후 제75 레인저연대로 원복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 교육사령관의 부관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주둔하는 제82 공정사단에서 근무했으며 코소보전과 아프간전에 참전했습니다. 제18 공정군단장의 부관으로 아프가니스탄 연합합동 태스크포스 및 이라크 다국적 군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 보직으로는 뉴욕주 포트 드럼에 주둔하는 제10 산악사단 87보병연대 1대대장을 역임하며 이라크 바그다드에 주둔하는 다국적 사단에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미 육군대학 교육을 마친 후 제10 산악사단 1여단장으로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사령관을 역 임했습니다. 여단장에서 이임한 후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에 주둔하는 합동준비태세 훈련 본부 작전단장을 지냈습니다. 향후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제7 보병사 단 작전부사령관, 캔자스주 포트 레번워스에서 임무형 지휘센터장, 아프가니스탄 국방부 수 석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에서 복무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7보병사단장을 지냈습니다.